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 화남지역>

獨 메르켈 총리의 광둥(廣東)성 방문

■ 독일 메르켈 총리는 2월 2일부터 양일간 유로존 구제기금 확충과 對이란 제재에 대한 중국 측 참여를 독려하고, 양국의 경제협력을 증진코자 베이징과 광둥성을 방문하였음.

- 지난 2일 독일 메르켈 총리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후, 3일 원자바오 총리와 함께 광둥성을 방문하였음.

○ 메르켈 총리는 2일 원자바오 총리와 유로존 구제기금 확충, 이란 제재에 대한 주제로 회담을 가짐.

○ 또한 광저우(廣州)시에서 왕양(汪洋) 당서기와 회담을 가진 후 "2012 중국·독일 경제포럼¹⁾"에 참석하였고, 광둥성에 진출한 독일 기업인 헤렌크네히트(Herrenknecht) 공장을 탐방하였음.

- 독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독일 총리가 광둥성을 방문한 주요 목적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시키기 위함임.²⁾

○ 광둥성은 중국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성(省)으로, 2011년 광둥성 GRDP는 5조 3천억 위안(약 8,405억 달러)에 달해 23년간 연속 1위를 유지하였음.³⁾

■ 독일은 대표적인 수출 흑자국이지만 광둥성과 중국의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 이에 본 방문으로 특히 경제발전 전환기에 이른 광둥성과 경제협력체계를 강화코자 함.

- 광둥성의 주요 수입 국가 중 아시아권 국가 비중이 높으며, 對독일 수입 규모는 미미한 수준임(표 1참고).

○ 2011년 광둥성의 對독일 수입은 전체의 2.5%로, 중국 전체 수입시장 점유율(5.5%)보다 3% 포인트 낮음.

1) 중국·독일경제포럼(中德經濟論壇)은 해마다 지역을 바꾸어 개최되며, 2012년은 광둥성 광저우시에서 개최되었음. 독일 측 대표로 메르켈 총리가, 중국 측 대표로 주샤오단(朱小丹) 광둥성 성장이 개최사를 하였고, 폭스바겐, 지멘스, BASF, 레노버를 포함한 400여명의 독일과 중국 기업대표들이 참석함.

2) 자료: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Zhou Wa. 2012. "Merkel visit to deepen bilateral relations" China Daily (Feb 2) 재인용

3) 자료: Michael Forsythe. 2012. "Southern Chinese Leader Wang Yang's Star Rises With Angela Merkel's Visit." Bloomberg (Feb 3); 『南方都市报』(2011), 「2010年廣東GDP45472.83億元連續22年全國第一」. (1月23日). 광둥성의 2011년 경제규모는 한국의 2005년 GDP와 비슷하고, 2010년 GDP의 80% 정도임. 자료: CEIC database(검색일: 2012.02.02)

표. 주요국의 광둥성과 중국의 수입시장 점유율(2011)

순위	국가명	광둥성 전체대비 점유율(%)	중국 전체대비 점유율(%)
1	China ⁴⁾	20.6	7.2
2	Japan	12.4	11.5
3	Taiwan	11.5	7.4
4	Korea Rep	9.6	9.6
5	Malaysia	4.6	3.7
6	United States	4.3	7.0
7	Thailand	3.5	2.3
8	Germany	2.5	5.5

주: 국가 순위는 광둥성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정리함.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검색일: 2012.02.06)

- 광둥성은 12·5시기(2011~15년) 산업구조 고도화를 핵심 키워드로 하여, 첨단 IT, 그린카, LED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제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 텐진사범대학(天津師範大學) 시웅하오(熊昊)교수는 이번 메르켈 총리의 적극적인 행보를 중국 시장에 대한 독일 기업의 점유율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주장함.⁵⁾
- 독일은 첨단장비 제조, 환경보호·에너지 절감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어, 향후 중국 측과 관련분야의 기술교류를 증진시킬 가능성이 있음.⁶⁾
- 메르켈 총리는 중·독 경제포럼에서 독일 기업대표단 중 많은 기업들이 중국 측과 환경보호와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분야의 기술교류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 광둥성 방문 시 메르켈 총리와 함께 에너지, 화학, 엔지니어링, 은행업계의 기업 대표자가 대동하였음.
- 주샤오단(朱小丹) 광둥성 성장도 독일이 기술우위를 점하고 있는 첨단장비 제조, 환경보호·에너지절감 분야 협력을 적극 장려함.

(김홍원 연구원)

4) 중국정부는 1990년 보세구(保稅區)를, 2005년 보세물류원구(保稅物流園區)를 설립하여 보세구 반출입 물품에 대해 수출입에 해당하는 혜택을 제공하였음. 중국의 對중국 수입액은 보세구 및 보세물류원구를 이용한 수입 규모로 파악됨. 자료: 정환우. 2007. 「중국의 對중국 수입 급증 원인과 시사점」. 『중국이슈리포트』, 제 2007-17호. 국제무역연구원

5) 자료: 魏香鏡(2012.02.02). 「默克尔今起正式访华 访问广东为给德企打气」. 『南方日报』

6) 자료: 谢思佳·赖竞超(2012.02.04). 「默克尔:珠三角巨大发展世界上没有哪个区域经历过」. 『南方日报』